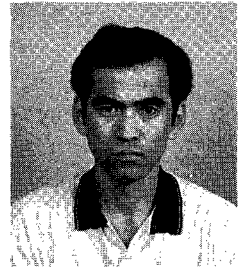


채란인들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허 원 행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 동두천분회 회원
- '83년부터 채란시작

지금 우리 양계인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슴속 깊이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양계인들은 지금 우리 현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양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오지 못했고, 남들은 편안히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닭만을 보살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사이엔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적자행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정책의 잘못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농장들의 단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입추에다 무자비한 증축에 있지는 않을까요? 또,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정보부족에 의한 마구잡이 신축에 있지는 않을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등 여러가지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우리는 서로 이웃을 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이 병아리를 입추하기전에, 또 증축을 하기전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였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적자행진은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정과 현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적자행진은 조금이라도 줄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물귀신이 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서로 물고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축과 신축 또 신규업자들만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료값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채산성

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농장부터 과감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감성은 우리 농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모두 이웃을 생각하고, 보살피는 심정으로 노력하여 현 난가에서 탈피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몇가지가 안됩니다. 우리가 자중하고, 물량을 조절해 나아가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물량조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아리를 길러놓고 노계를 뽑아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노계를 먼저 뽑고 병아리를 기른다면 그만큼 시일이 더 필요하여 농장에서의 계란은 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 농장 우리 농장에서 다만 계란을 몇 판 몇 십판을 줄이면 그 만큼 유통이 덜되어 원만한 유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계를 뽑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농장을 논의하기 전에 나의 농장부터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전 회원들의 농장이 원만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우선 내 농장부터 과감성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에 대해 몇가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란선별작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우리 농장들의 수입원은 계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작업은 우리의 양심이며 우리의 현찰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며 우리 농장의 흑자와 적자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그 만큼 청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의 상품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

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산한 계란을 보면 먹고싶은 충동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산한 계란 한개라도 더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할 일은 우선 계란선별을 잘하고 오란과 파란을 철저히 선별하여 깨끗하고 맛있고 신선한 계란을 우리 시장에 유통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난좌를 건조시킨 상태에서 계란을 담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제아무리 계란을 오란과 파란을 골라서 담아주었다 하더라도 난좌가 더럽고 젖어있으면 깨끗한 계란이라도 결국은 계란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또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가 생산한 계란은 결국 주부들에게 혐오식품이 될 것입니다. 주부들의 눈에 계란이 더럽고 혐오식품으로 보인다면 우리 산란계 농장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난좌에 담아 출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난후 상인들과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상대하기 전에 우선 우리 농장들이 상인들에게 약점은 없는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상인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만큼 농장에서는 유리하고 농장을 잘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 난좌가 아니라도 깨끗이 말려 담고 파란과 오란을 제거한다면 농장에서는 그리 약점을 잡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마철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기에다 습기로 인한 곰팡이 번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난좌에는 각종 곰팡이의 온상이 되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해 주부들은 점점 계란을 멀

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기가 오기전에 우리는 상인들에게 다만 젖은 난좌라도 입수해 태양이 있는 날 잘 말려장마때 쓸 난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젖은 난좌를 상인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즉,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을 주부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유행란, 요드란, 위생란, 자연란 등 우리가 생산한 것이 특수란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주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란이 다만 사료에 따라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른 병아리에 사료만 바꾸면 그 좋다는 특수란이 생산됩니다. 특수란 한 개에 우리가 생산한 계란 두 개 반이 넘는 가격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것이 특수란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이웃과 주부들에게 주입시키자는 것입니다.

도시의 주부들이 무조건 값이 비싼것을 선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부층중 아직까지 서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특수란이 시중에 유통이 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우리가 생산한 계란이 많고 아직도 서민과 주부들은 우리의 계란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우리 산란계를 운영하는 회원들은 계속하여 신선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계란을 우리 시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지키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회원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하고 신선한 계란만 시장에 유통을 시킨다면 아마 시장은 계속하여 우리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각자 상인들을 매개체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에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또한 파란과 오란 그리고 혈란 등 이러한 계란은 될 수 있는대로 유통을 자제시킨다면 시장확보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우리 시장을 감히 침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의 것을 다시 논의하자면 불황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분별한 입추에 무자비한 증축
2. 신규업자들의 정보부족과 마구잡이 신축
3. 노계의 계획성 없는 출하
4. 물량조절 실패로 인한 유통의 실패
5. 비위생적인 난좌유통으로 인한 주부들의 혐오식품 인식 초래
6. 상인들의 과다수거로 인한 보관상의 문제
7. 홍보부족으로 계속되는 특수란의 시장잠식

이러한 것들이 우선 해결해야할 채란업자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모두가 정책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대처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잠식과 적자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자중과 현실을 생각하여 오늘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17**